
*
* 業 界 消 息 *
*

 錦 織 器 具 式 有 限 公 司

◎ 「韓國의 原子力 20年史」 정리 편찬

原子力院이 大統領 直屬機構로 發足된 것을 기점으로 1979年度는 우리나라가 原子力 20年을 맞는 해이다. 原子力 研究所에서는 이를 長期로하여 우리나라 原子力事業의 발자취와 現況 및 來日의 좌표를 한데 모은 「韓國의 原子力 20年史」 편찬을 착수 하였다.

또한 原子力 20年史에는 原子力 研究所의 關係 事項 뿐만 아니라 原子力産業會議, 原子力學會, 核燃料 公團, 原子力技術株式會社, 科學技術處 原子力委員會 및 原子力局, 動力資源部, 韓國電力의 原子力部 등 原子力 關係團體 및 機關의 事項도 총망라하여 集大成한다고 한다.

◎ 우수研究者에 79년부터 特別보너스制

科学財團 225名에 6億4千萬円 支給예정

韓國科学財團(이사장 崔亨燮과학기술처장관)은 산업기술부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올려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주는 研究獎勵金制度를 마련하고 79年度부터 취급하기로 했다.

79년도의 지급계획은 金賞(년1천만원) 15명, 銀賞(년7백만원) 20명, 銅賞(년5백만원) 40명, 장려상(년50만~2백만원) 150명등 모두 225명에게 6億4千萬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金, 銀, 銅賞의 지급대상은 獨立된 프로젝트를 책임 수행한 연구원이나 기술원이며 이 연구 또는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장려상을 주게 된다.

科学財團은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기관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특정연구기관이나 獨立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의 예도 과학기술분야의 공공연구기관과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잡고 있다.

科学財團이 장려하는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例示하면 첫째 設計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研究開發과 改善, 둘째 論文분야에서 産業부문에 應用할 수 있는 이론의 연구, 셋째 특허권설정기술(工業所有權) 넷째 試作品의 제조(製作) 다섯째 外國의 新技術의 應用法考案(도입기술의 소화개량)등이다.

科学財團은 10명으로 구성된 豫備심사위원 (위원장 科学財團사무총장)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고 최종결정은 技術審査委員會 (위원장 科技処次官)가 하도록 되어 있다. 79年度の 연구장려금은 77-78年間 발표·제작·수행된 연구·개발과제중에서 선정하여 79年 9月께 지급될 예정이다.

◎ 現代洋行 6萬KW 火力發電機 낙찰

— 11月 15日 北예멘 國際入札에서 —

現代洋行은 지난달 15日 北「예멘」에서 실시된 6萬KW 火力發電機 국제입찰에서 日本과 西獨「메이커」들을 누르고 낙찰에 성공함으로써 韓國은 마침내 발전 「플랜트」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4일 이곳에서 보도됐다.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멘」에서의 상담은 2萬KW 火力發電機 3대를 完全 일괄 수주형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서 「보일러」 「터빈」발전기등 일련의 부대설비의 제조에서부터 발전소의 기존공사, 건물건설에 이르기까지 청부를 맡은것으로서 韓國의 現代洋行은 日貨 1百51億5千1百萬圓의 입찰가격으로 1위 응찰자로 등장했다.

◎ 原電, 國產比率 의무조항 廢止

— 安全性 보장위해 發電設備 國產化率 火電에만 적용

政府는 火力 및 原子力發電所건설에 부대조건으로 부과해온 發電設備 및 기자재의 國産化率 의무조항을 火力發電所에만 적용하고 原子力發電所에 대해서는 이를 철폐하는 대신 앞으로 건설되는 原子力七・八号機부터는 國內發電設備業체와 外國業체가 합작 또는 기술 제휴해서 건설하도록 의무화시켜 자율적으로 國産화를 추진토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八日 勳資部에 依하면 原子力發電所건설은 고도의 기술과 정밀한 설비를 요하는 종합기술체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國産화목표를 부과할 경우 안정성과 발전성능보장이 위태롭게 된다고보고 기존원자력발전설비 國産화시책을 전면백지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건설중인 原子力五・六号機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 계약체결시 각각부과했던 十八・三%, 二十三・三%의 國産화율을 백지화하고 건설업체가 十~二十%선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토록했다.

◎ 효성重工業, 發電所 主機材 生産推進

효성重工業은 發電機 「플랜트」와 관련 「보일러」 「터빈」등 發電所用 主機資材등을 生産推進키 위해 창원공단에 10여만평의 工場敷地를 확보하고 政府에 生産 승인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효성重工業은 同發電所 부문에 참여키위해 효성엔지니어링에 發電部를 新設했는데 효성이 이분야에 참여할 경우 發電所主機資材供給

은 現代洋行，現代重工業，大宇重工業，三星重工등으로 다원화된다。

◎ 原電 7.8号機 敷地 87萬坪 買入 着手

지난 八日 韓電에 依하면 전남영광군에 건설하게되는 施設容量 각각 九十萬KW인 七.八号機 發電所敷地 매수작업을 이달부터 내년초까지 二十四億三千萬円을 들여 八十七만七千坪의 용지를 매수하게 된다。